

자동차 가격 상승 현상 분석

KATECH Ins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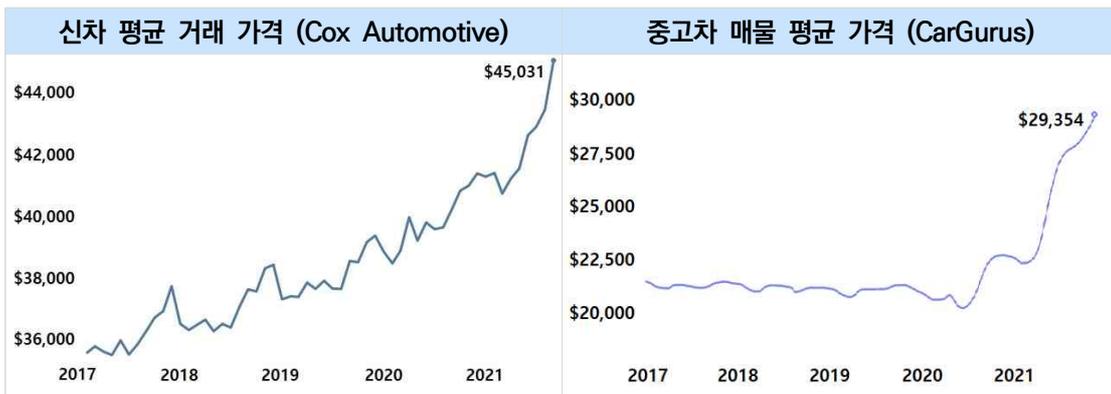
- ◆ '20년 하반기부터 미국, 유럽,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로, 이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, 제조 원가 상승,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
- ◆ 車 가격 상승 압력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워 '22년에도 신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, 국내에서는 자동차 세제 개편, 전기차 보조금 로드맵 재검토 등이 정책 이슈가 될 수 있음

■ '20년 하반기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

- (미국) 신차 평균 거래 가격*이 '21.9월 4.5만 달러에 달해 직전 1년 간 약 12% 상승하였고, 중고차 매물 평균 가격은 '21.11월 2.9만 달러로 직전 1년 간 약 29% 상승

* 미국은 자동차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어 신차 가격은 딜러와 소비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, 최근에는 제조사의 MSRP(권장소비자가격) 이상의 가격으로 신차가 거래되는 경우도 빈번함

■ 2017년~2021년 미국의 신차·중고차 가격 변화 ■



- (유럽·일본) 신차 공급 지연으로 유럽은 '21.10월 중고차 평균 가격이 연초 대비 최대 28.3%* 상승하였고, 일본은 '21.10월 중고차 경매 가격이 1년 전 대비 11% 상승

* 국가별 상승률은 영국 28.3%, 이탈리아 10.2%, 독일 8.6%, 프랑스 3.2% 등임 (AM Online)

- (한국) 신차 가격은 일부 수입차를 중심으로, 중고차 가격은 국산·수입 전체적으로 상승 중
 - (신차) 정찰제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국산차는 예년 대비 가격 급등세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, 수입차는 명목 판매 가격이 상승하거나(Tesla 등), 판매사의 프로모션이 줄어드는 추세
 - (중고차)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국산·수입 중고차 가격이 상승 중이며, 특히 출고 수개월 이내의 중고차는 신차 수요를 흡수하여 신차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상도 발생

▣ 자동차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반도체 공급난, 제조 원가 상승, 수요 회복 요인이 병존

- (반도체亂) '20년 하반기의 1차 공급난, '21년 중순의 2차 공급난 여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완성차 기업은 적기 생산·판매가 불가한 상태
- (원가상승) '20년 이후 자동차 공통 소재 및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국제 가격이 오름세이며 주요국의 물류비용* 및 인건비 상승 추세가 더해지면서 자동차 제조원가가 급등
 - * 일례로 '21.10월 미국의 트럭 화물 운송비용은 전년 대비 36.2% 상승하였음 (Bloomberg)
- (수요회복) 국가별 여건은 다소 다르나 코로나-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자동차 교체 수요, 온라인 상거래 보편화로 인한 물류 배송차량 증가 등이 신차 수요 회복을 견인하고 있음

▣ 자동차 주요 소재 국제 가격 변화 추이 (KOMIS 및 e-나라지표) ▣

구분	소재명	'20.1월 톤당 가격(A)	'21.11월 톤당 가격(B)	상승률((B/A)-1)
자동차 공통	열연강판 (美 중서부 가격)	603 USD	1,502 USD*	149%
	냉연강판 (美 중서부 가격)	805 USD	1,708 USD*	112%
	알루미늄	1,772 USD	2,642 USD	49%
	마그네슘	2,116 USD	5,211 USD	146%
전기차 배터리	리튬 (배터리 등급)	51,000 RMB	179,750 RMB*	249%
	코발트	32,398 USD	59,958 USD	85%
	니켈	13,553 USD	19,954 USD	47%
	망간	1,165 USD	1,935 USD	66%

* '21.11월 데이터가 없어 열연강판·냉연강판은 '21.7월, 리튬은 '21.10월 데이터로 대체하였음

▣ 車 가격 상승 압력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우며, 국내에서도 관련 이슈가 두드러질 전망

- (전망) '22년에도 국내외에서 신차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, 전기차는 가격 저감이 더뎠을 것
 - 완성차기업은 판매량 감소, 친환경차 R&D 투자, 하방 경직적인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국내에서도 연식 변경과 함께 車 가격 인상이 예상됨
 - 전기차는 상술한 요인 외에도 배터리 소재 원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, 생산비용 저감을 위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의 급격한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
 - * 자동차 공통 소재는 중국발 생산 정체가,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 수요 폭증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는 차이점이 있음
- (이슈) 車 구매 관련 소비자 부담 경감, 전기차 보조금 정책 등이 정책 이슈로서 제기될 수 있음
 - 국내 車 가격 인상 본격화 시 생계형 운전자나 서민의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경감하기 위해 신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음
 -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동등화(Price Parity)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로드맵 재검토 및 리튬인산철(LFP) 배터리* 기술개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
 - *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 저감을 위해 NCM, NCA 등 3원계 배터리보다 저렴한 LFP 배터리 채택이 확대 되는 추세로, 전기차 중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대수 비중은 '19.3Q 9.1% → '20.3Q 36.5%로 증가